

■ 단신 ■

미얀마 현지법인 장성 법인장, 유정훈 변호사, 일본 기업 법조팀의 최대 모임인 경영법우회의 내부 세미나에서 '미얀마의 법제 및 실무적 쟁점'을 주제로 강의



(법무법인 지평 장성 법인장, 유정훈 변호사)

미얀마 현지법인의 장성 법인장, 유정훈 변호사는 12월 5일 일본 로펌인 키타하마의 이쿠타 변호사님과 함께 일본 기업 법조팀의 최대 모임인 경영법우회의 내부 세미나에 강사로 초청되어 '미얀마의 법제 및 실무적 쟁점'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날 세미나에는 130명의 일본기업 법조팀이 참석하였습니다.